

치과의료선교회지 DEC 2009 겨울호

Universal Care

선교지에서 온 편지

디아스포라 신학교

김영제 목사

남아공 배성호선교사

MK 사역과 선교

Polly Chan

My Vision

최혜원
'MK! 내 마음에 들어 오다'

Special Lecture -황필남 선교사

바울의 선교전략

2009.12.21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라는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표지설명



2009년 5월, 몽골아이를 안고 있는 이은례 사모, 'Care'란, 사랑에서 비롯되며,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가장 우선되는 표현, Universal Care 의 첫마음

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Contents

03 *Prologue*

– 2009 가을 그리고 겨울, 그 사이
/정진호

04 선교지에서

/러시아 김우섭선교사

06 My Vision

'MK,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다' /최혜원

09 MK 사역과 선교

15 *Special Lecture*

황필남 목사

26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김영제목사/배성호선교사

31 선교사 기도제목

Prologue

2009 가을 그리고 겨울, 그 사이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9년은 Universal Care가 산고(産苦) 가운데 태어난 뜻 깊은 한 해입니다.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 2만명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는 1,000명(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4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짐바브웨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단 1명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아공도 분명 머나먼 땅인데, 또 하나의 땅끝을 찾아 나서는 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전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몽골인들을 찾아 유럽교회들을 둘러 보고, 다시 미국 워싱턴 몽골인 교회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황필남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몽골인들을 찾아 그토록 전세계를 유랑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 땅끝을 사모하며 그 머나먼 길을 온 것이겠지요

그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 질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음을 알기에 그 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 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되는 그 순간의 감격을 생각하면,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 분의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외롭지도 않으며, 과히 힘들지도 않은 길임입니다.

2009, 가을 그리고 겨울 그 사이에, 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것들을 중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정 진 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선교지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훌쩍 떠나 익숙치 않은 땅과 사람을 향해 떠나온 지 어언 10년



김우섭 목사
러시아 선교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훌쩍 떠나 익숙치 않은 땅과 사람을 향해 떠나온 지 어느덧 12년. 카자스탄 크즐오르다를 거쳐 지금은 러시아 '로스톱 나 다누'. 한 때는 철의 장막으로 굳게 얼굴을 가린 채 아무에게도 그리고 어느 때에도 자신을 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낯선 백인들의 나라 러시아에 와 있는 것이다. 러시아라는 이름만으로도 광활한 대자연과 역사 속에 우뚝 선 예술가들을 선뜻 떠올리며 동경과 호기심을 자아내 볼 만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막상 우리가 만난 그 희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이들은, 냉소적이고 자만하며, 동시에 격동의 시대를 겪어온 이들답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듯 이방인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선교사의 인생여정이란 나그네 길이 아니던가! 또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선교사의 삶은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는 친숙한 고향을 떠나 이방인 속에서 살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 되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백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리라. 묵묵한 시선과 세월 속에서 입증 된 아브라함의 거룩한 삶이 이방 땅의 방백으로 그를 세우게 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을 보면 그처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로스톱에 처음 왔을 때의 낯설던 기억이 난다. 기차역에 마중 나온 고려인은 인사조차 건내지 않았다. 세를 내준 집주인은 목사라고 부르기를 꺼려했다. 그들에게 목사는 별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으리라. 인정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느껴진 감정은 지금도 인상에 남아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고, 목사를 하나님의 방백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불신 이방인도 '파스토르(목사)'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넨다. 사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이곳의 정서가 손톱만큼이나마 바뀌고 있구나 싶어 하늘을 향해 감사했다.

목사, 선교사라는 직함은 이방인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직함이기는 커녕,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요, 주목과 감시의 대상이다. 오직 그들과 함께 살을 비비고, 울고 웃는 삶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없다면 선교사는 과연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점점 강건해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한다.

로스톱은 러시아의 식량 공장이며 저장소다. 기름진 흑토가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펼쳐져있다. 그리고 로스톱에는 카프카스를 아우르며 남부 연방의 5백만 영혼을 책임지는, 요셉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할 선지 학교가 있다. 로스톱 고려신학교 분교다.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명의 열정으로 사역 전선에서 추수꾼으로 일하는 자들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모여 선지 훈련을 받고 있다. 이 선지 학교가 주님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좋은 목자 훈련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실한 말씀의 선포, 성경적인 성례 시행, 권징은 참교회의 표지임에도 이곳은 참교회의 표지가 너무나 희미하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다. 이것은 바울을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에게해 건너편에서 손짓하며 불렀던 또 다른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머나 먼 길을 오가시며 강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교수님들의 노고가 그들의 영에 남아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리라.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에 열매와 기쁨은 배가 되고 있다. 나 또한 강의를 경청할 때마다 은혜로 채워지며, 나를 위한 업그레이드도 열심히하고 있다.

모쪼록 이 이방 땅에 한 알의 뿌려진 씨앗이 되고, 고국의 성도들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이 광활한 러시아에 영적 목양지가 드넓게 확장되어 이곳의 기름진 옥토만큼이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한다.

My Vision

MK,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다

최혜원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도연 선교사님 (태국)과 점심 식사 교제 중 MK (Missionary Kids ; 선교사 자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평소에 내가 MK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안 남편은 약간은 상기된 목소리였다. 두 아이들과 분주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기에 통화는 별 감동 없이 하나의 사실로서만 들려 왔다. 그러나 자려고 누웠을 때 피곤할 법도 한 육체와는 달리 머릿속은 오후의 통화 내용이 머리를 맴돌고 뭔가 가슴 벅찬 감정들이 솟구치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컴퓨터의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선교의 작은 씨앗.

초등학교 3 학년 때의 여름 수련회. 신나는 물놀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흰 와이셔츠의 푸르고 회색빛 도는 양복바지를 둘둘말아 입고 신나게 물놀이 하던 전도사님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눈물 흘리시며 목 놓아 부르짖으며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스틸 사진 한 컷을 보는 것처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기억한다. 나는 그때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함께 울며 기도했던 것을...그리고 그때부터 선교라는 것이 내 맘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것 같다. 그 후로 선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적극적인 선교에 대한 선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돈 모아 몇 푼 안되는 선교헌금 드리고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연은 없다.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나름 행복하고 예쁘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갔다. 남편은 2006년 치과를 개원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술이란 달란트가 선교에 사용되어지길 원했고 개원한지 3개월 후 몽골로 첫 사역을 떠났다. 그리고 몽골사역을 준비하면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때의 전도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 때의 전도사님이 몽골인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황필남 선교사님인 것이다. 선교사님 역시 나를 기억하시면서 몽골에서의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땐 때론 그때의 초등부의 부흥과 그 친구들이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그리워진다고 하셨다. 그렇게 감동의 재회와 함께 우리부부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던 사역의 첫발을 내딛었다. 남편의 동역자로 또 내조자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해도 남편의 의료사역은 계속되었고 감사, 감사 또 감사했다.

MK. 또 하나의 멜로디.

두번째의 몽골로의 의료선교 준비모임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특강들로 진행되었었다. 특강을 듣던 중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고충을 들으며 난 큰 도전을 받았다. 사실, 남편의 사역이 의료라는 전문인 사역이다보니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나 또한 나의 음악이라는 달란트로 보다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민과 기도 중에 있었던 터라 그 도전은 나를 흥분케 했다. 또한 세연이를 키우면서 여러 정황들이 대학원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공부하게 하셨고, 분명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었는데 MK들을 위한 사역을 위한 준비들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감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MK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한국 선교 정서상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자신은 물론 주위의 선교 공동체들까지 전임사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사역과 가정을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MK들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교육적인 배려들은 일단 유보하거나 소극적이기 쉽다. 또한 '서구적 교육을 받고 있으니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과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막연함'으로 그들을 Care 하는데는 소홀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소위 보내는 선교사라면 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적어도 내게는 선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요, 현지에서도 이방인들인 그들이 인내해야 할 고통의 무게는 가볍지 않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 대학부 시절 러시아 나홋가로 비전 트립을 갈 때 또래의 우리를 보고 마냥 반갑다고 눈물 흘리며 외로움을 호소하던 선교사님의 자녀가 생각난다.

고속도로 앞에서.

지금 현재 정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망 마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MK 들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이 그 땅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으며 세계 18 개의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MK 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도연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는 이미 상당수의 MK 들이 출석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여름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치앙 마이에서 MK들과 태국 현지인들을 위해 뮤직 캠프를 열었다고 한다.

나는 MK 들을 위한 사역에 도전을 받았을 때, 그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나 음악캠프 또 예배반주자 양성, 음악 공연등 여러 가지로 나의 달란트가 쓰여 지길 원하고 있었었다. 하지만 MK 들을 위한 사역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문제이기에 사역에 대한 고민은 마치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치앙마이에서의 사역들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듯 했다. 게다가 그 곳은 MK 들이 한곳에 모인 곳이 아니던가... MK 들을 Care 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이미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니 마치 고속도로 앞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

Jigsaw puzzles.

내가 지금 가슴 벅찬, 알지 못하는 감정들의 솟구침은 나의 사역에 대해 할 일들이 생각나서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나에게 초등학교 3 학년때 선교의 작은 씨앗을 심기시고,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남편이 선교를 배우고 헌신하기로 한 그곳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의 사역에 관한 또 한번의 도전을 주시고 ... 그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라고 생각하니 '여호와 이례의 하나님!!' 어찌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이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작은 일들 하나 하나의 퍼즐조각들을 모아 큰 지그소 퍼즐을 맞추시고 있는 듯하다.



나는 지금 두 아이들을 키우며 분주하고 여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이 육아 또한 MK들을 Care 하는데 언젠가 도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지금이 주님의 내일을 위한 것 되게 하소서!"

기도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MK 사역과 선교

폴리 찬 (OMF 선교사 자녀 사역)

Written by **Polly Chan**

OMF Coordinator For Asian MK Care and Education

번역: 안지영 (전 선교정보실 간사)

선교사 자녀 사역과 선교

선교역사를 뒤돌아보면, 선교지에 헌신하였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감명 받게 된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 역시 선교지로 되돌아가 서 결국 3, 4 대에까지 이르러 선교사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러한 2대, 혹은 3 대째의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선교회에 관해 필자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선교회가 선교사자녀(Missionary Kids: MK, 이하 MK로 칭함)들을 위한 조직적인 사역을 통하여 MK들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제공함으로서 이들 가정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는 것이다. MK 사역과 선교는 상호 보완적이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자녀 사역의 역할

1. 선교사 자녀 사역의 역할

많은 서양인 선교사 가족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선교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선교지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선교사자녀 교육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주요한 필요들이 채워질 때 부모 선교사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2. 선교사 자녀의 잠재력

MK는 엄청난 잠재력의 산실이다. 최근 성인 MK에 대하여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성인 MK의 17.4%가 해외 선교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 다른 17%는 국내에서 전임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다. (Interact, 3권 4번, 1994년 5월) 선교사 자녀들의 언어능력, 다양한 문화 경험과 어우러진 그들의 넓은 세계관을 통해 그들이 다문화 사역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의 삶에 투자할 때, 사실상 우리는 제2세대의 선교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3. 선교사 자녀 사역자(MK Care-givers)들의 역할

OMF, SIM, Wycliffe와 같은 국제 선교단체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지 원사역에 많은 인재와 물질을 투자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선교단체의 주요한 사역중의 하나는 선교사 자녀 사역과 교육에 관련된 것이었다. 선교단체들은 MK 교사, 기숙사의 보모들, 그리고 본국의 MK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MK 사역자들은 전방에서 사역하는 교회개척 자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후원 받고 있다. 전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후방의 선교사들은 한 팀을 이루어 미전도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MK 사역의 영역

MK 사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교육을 떠올리게 된다.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긴급한 현안이지만 선교사 자녀 사역은 교육을 포함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선교사 자녀들의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영적인 성장을 돌봐야 한다.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중대하지만 그들 역시 모든 것을 홀로 할 수는 없다. 다문화적인 상황은 MK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가적인 도전을 준다. 부모들은 MK 사역자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지원교회들에게 아낌없는 협력을 해야한다. MK 사역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pre-field)과 현장(on field), 그리고 재입국(re-entry) 이후의 세 과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1. 선교지로 나가기 전의 과정

a. 다문화권에서의 양육; 부모들을 위한 상담 제공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임무이다. 선교사가정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기 전에 부

모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녀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준비시키는 방법과 MK 들의 특수한 필요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

b. MK 교육에 관한 조언

MK 교육은 아시아인 부모들에게 특히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들은 선교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들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잠재적인 장단점을 제공받아야 하며 아울러 선택한 교육이 자녀들에게 미칠 장기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비교적 뚜렷한 민족적 정체감을 갖고 모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국의 대학의 입학 절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MK 학교나 혹은 해외 한국인 학교들이 MK 들에게 더 좋은 교육장소가 될 것이다.

부모의 안식년동안과 MK의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간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아시아인 MK들이 선교지에서 서양의 문화가 지배적인 MK 학교나 현지인 학교를 수년간 다닌 후에 모국의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

다. 이러한 자녀들을 위한 부가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선교사들은 기독교인 교육자들에게서 부터 정보와 도움을 받게 된다.

2. 현장에서

a. 모국어와 문화를 알고 유지하자.

선교지에서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의 자녀들이 모국어와 그 문화를 유지하도록 돋는다. 있어서의 방법(how)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학교가 이러한 영역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가족과 선교사 사회 또한 MK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그 자녀들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때, 선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MK 교육의 선택안 제시

필리핀에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선교사회에서 가족들의 교육적인 필요가 다양하다. MK 교육자들은 MK들의 교육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 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MK 교육자들은 모국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선교환경에 적합하게 연구

하여, 가정에서 사용할만한 교재 들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여 기존의 MK/국제기독 교 학교와 협력하면서 이러한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아시아인 MK 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c. MK 교육의 질의 향상

아시아인들에게 MK 교육의 경험은 제한되어 왔다. 아시아 교육자들이 서방권 동료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긴급한 현안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수많은 MK 들을 위해 필요한 기숙사 (boarding homes)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특별히 MK 사역에 헌신된 아시아인 사역자들이 다문화권 사역(cross-cultural)에 준비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회는 이러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이들을 교육할 적절한 훈련자료들과 기숙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MK 사역 헌신자들의 장기간 사역이 요청된다.

d. 변화기에 대응하여 MK 준비시키기.

교육 외에도 MK 교육자들은 변화의 시기를 거치는 MK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교사 자녀들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수많은 해어짐과 새로운 만남들을 거치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서양권 MK 교육자들과 상담가들은 MK 들이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서 맞이하는 슬픈 시간들을 완화하도록 돋고 있다. 동시에 그들

이 선교지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맞부딪치는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MK 전문인들은 MK 들이 선교지에서 모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MK 들이 재입국이라는 새로운 모험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을 돋게 될 것이다.

e. MK 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 가족이 선교현장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을 부닥 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나 언어 습득에서의 어려움, 혹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주께서 MK 들을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MK 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MK 들이 거쳐야만 하는 모든 변화의 어려움들이 결국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가는 과정 가운데 사용될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 MK 들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매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3. 재입국

a. 부모로부터의 도움

선교지에서 자란 대부분의 MK 들에게 재입국은 커다란 충격이 되어 왔다. MK 들에게 모국의 사람과 장소가 오히려 낯선 것일 수 있다. 교육, 문화적응, 새로운 교

회생활의 적응 등은 모두 중요한 현안이다. 종종 10 대의 MK 들은 모국에서의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고백한다. 또래들은 MK 들의 해 외에서의 과거의 삶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재입국에 관련하여 MK 들에게 주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대상은 부모들임 이 증명되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질적, 양적인 시간들은 MK 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왔다.

b. 그 외 지원 조직들

모국의 몇몇 교회들이 MK 의 재입국에 관련하여 그들을 돋는 지원그룹을 조직 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자원봉사자 개인 교습자들이 학교공부와 병행 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회 지체들이 모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MK 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한국인 MK 들은 GMF 에서 주최하는 연례 MK 캠프를 통하여 재입국전에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이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MK 와 MK Care

필자는 많은 동서양의 MK 들을 만나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가지

고 계심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주를 경외하며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그들 삶의 이른 시기에 보낸 해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MK 들은 모국에서 자란 또래들과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국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들을 놓치게 되지만 그들 거의 모두는 MK 라는 사실 이 축복임을 발견하게 된다. 해외에서 살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 목을 갖게 되는 기회들을 감사하게 되지만 반면에 모국의 또래들이 거치지 않는 도전들을 직면하게 된다. 빈번한 이동과 전학 그리고 잦은 만남과 헤어짐 등은 MK 들이 극복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들은 그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기도해줄 우리들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주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아시아인들을 부르시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MK 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교사 가족을 돋는 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한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언젠가 한 불교인이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려 해도 이 사람은 전혀 동요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그는 화제를 바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MK 의 care 에 관한 나의 사역과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에 대해 설명했다. 잠잠히 듣고 있던 그가 말문을 열었다. "기독교인인 당신네들은 불교인인 우리와 상당히 다른 것 같군요. 당신들은 당신의 가족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군요" 나는 작은 아이들-MK-을 돌봄으로 인해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나눌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주께 감사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일이 아니었던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 13:34~35). MK들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다.

상기 글은 '김동욱'님의
싸이월드 블로그 (www.cyworld.com/mktalvin)
Dream에서 퍼 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교특강

바울의 선교 전략

황필남 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1. 바울의 선교 동기는 무엇인가?

첫째, 바울 자신이 직접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초 자연적으로 체험하였다.(행전 9:15)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으면, 그는 선교사를 돋는자 될 수 있지만, 선교사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선교사가 의지하고 서야 할 궁극적인 뿌리이다.1)

둘째,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승자라고 주장했다.(롬 9:29, 10:12, 앱 4:6)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교회에게 선교의 짐을 지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헬라 세계에도 하나님을 전해야만 했다.

현명한자들이나 무식한자에게 모두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롬 1:14) 또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신(대사)이라고 고백했다.(고후 5:20)

셋째,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빛진자의 심장으로 살았다(롬 1:14, 고전 9:16)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이 "빛진자"라고 했다. 이것이 그의 선교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넷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식이 철저했다.(행 9:15)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의 전도행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식이 철저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수용성이 너무 컷기 때문이다.3)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사도로 자각했고,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특별히 이방인들의 상황에서 선교적인 요청이 선교의 동기가 된다. 이방인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무지와 미신들로 어두워졌다. 그들은 암흑 가운데 거하고(엡 4:17-19),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었고(골 1:21),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엡 2:3),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음(엡 2:12)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 되었으므로 복음을 전해야 할 동기가 된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유대인은 충분히 복음을 받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선교해야 할 이유였다.

2.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선교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을 가장 조직적으로 실천한 선교사였다. 바울의 선교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는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대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다.(행 17-18 장) 그의 선교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9:15 절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보낼 계획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내셨었고,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행 13:1-3)

그리고 선교지를 결정할때도 성령의 인도에 의지했다. 행전 16:16 절 이하에서도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어” 유럽으로 그 방향을 돌렸다하고 기록한다. 4)

둘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였다.

그는 다양성을 가지고 선교했다. 즉 때에 따라 전도방법을 달리했다. 그의 3 번에 걸친 선교설교(행 13:16-41, 14:15-17, 17:16-31)와 그의 13 권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세 번째,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은 정책을 택했다.(롬 15:20)

바울은 다른 삶이 선교한 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정책을 썼다. 이것은 보다 많은 새로운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같은 선교기관들끼리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 새로운 도시들을 향한 개척의 원리

1 차 선교 여행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서쪽 지방을 선교의 대상으로 택했다. 바울은 대도시에서 출생하였다. 도시의 기능 가운데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와 교류를 알았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에 이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번한 도시 왕래를 통해서 복음이 주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을 깨닫았다.

다섯 번째, 자비량에 선교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원리다.

바울은 철저한 자비량 선교의 의식이 있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믿음에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바울은 새로 개척한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바울은 절대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았다. 재정의 수입, 지출은 그의 선교 사역과 완전히 분리 되었다.

바울의 재정정책은 3 중적이었다. 그는 스스로 일해서 자신과 동료들의 필요한 것을 감당했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처음부터 자립할 것을 기대했고,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 것을 독려했다.6)

바울은 고전 9:13-14 절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는 원리에 따라 다른 사도들처럼 재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결혼도 안했고, 자비량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상을 받기 위해서 “값없이” 전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7)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재정적인 독립을 하도록 했다.

여섯째, 그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후 1:1, 딤전 1:1, 엡 1:1)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며(롬 1:1),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갈 1:15)라고 했다.

일곱째, 그는 삶을 통해 인격적인 모범을 보임으로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때에 살전 1:6 절에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먼저 바울에게 돌아오고 나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 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끌려 왔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여덟째, 복음전도와 교육을 함께 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 그런후 그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성장하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20 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으며(행전 20:31)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행 18:11) 디모데, 빌레몬등 개인들과 여러 교회에게는 편지를 써서 가르쳤다. 행전 16:36 절에는 다시 가서 이미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방문하러 다시 가는 바울의 의견속에서 양육의 원리를 사용했음을 본다. 그리고 그는 이 양육을 위해 여행하고 돌아 보기를 원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원리들은 그의 복음 사역의 놀라운 성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이 무엇이었는가?

1) 선교본부와 긴밀한 관계유지

바울은 회개의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사명을 부여 받았으나 그가 봉사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축복하며 선교사로 파송했다. 바울이 선교본부인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것은 선교의 성공과 기도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의 어머니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지역에 찬란히 복음을 전한 이방의 어머니 교회였다.

2) 전략적 중심지로서 대도시 집중 선교

바울이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생활이 보다 안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 아니라, 대도시들이 복음의 빛을 주변지역에 전파하는데 전략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때문이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은 대개 그 당시 문화를 주도해 온 헬라 문명(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교통이 편리한 세계 상업의 중심지, 유대교의 중심지였다.

바울의 출생은 대도시 다소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당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교육중심의 도시이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하여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도시로 인정 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의 제국에서 제 3 의 큰 도시였고, 여러 종족이 뒤섞여 사는 도시였다. 동서 상업을 연결하는 요충지(상업도시)였고, 팔레스타인 경계선에 인접한 도시(300 마일, 20 만 인구 대도시)였으며, 팔레스타인에서 희랍과 로마로 들어 가는 관문으로서 기독교 전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던 기지가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 되었으나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독특한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바울은 세 번의 선교여행에서 제국에 의해 건설되었고 유지된 유명한 도로들을 잘 활용했다. 그 도시들은 로마의 행정과 헬라문명의 중심지였다. 그들중에 몇몇은 빌립보와 같이 로마의 식민도시였고, 다른 곳은 데살로니가처럼 분주한 상업도시였고, 빌립보를 제외한 모든 곳은 상당히 많은 유대민족이 있었다. 아덴은 문화의 중심이었고, 에베소는 바울이 활동한 가장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은 아시아의 수도였고,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잡고 있어서 로마제국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매년 수십만의 순례자들이 방문했으며, 상인들은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고 있었다.(행 19:25-27) 에베소의 중요성은 바울이 1 개 도시를 위해서 가장 긴 3 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행 20:31)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행 18:24-26)도 에베소에서 활동했으며, 허날 사도 요한도 그곳에 정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바울의 생애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수리아의 다메섹, 안디옥, 실루기아로 그리고 길리기아에서는 다소, 구브로, 더베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아가야에서는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를,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 폴리스등 철저하게 도시를 집중해서 선교했다.8)

현대의 도시는 산업화로 인해서 직업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포화 상태이다. 도시는 선교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원과 재정을 투입하여 농촌과 시골 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른 종교들이 점령했다. 바울은 절망적이고 부패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희망과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 지게 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정거장식 선교방법으로 중심도시에 집중 선교했다. 그리고 그 주변 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복음화는 새로 설립된 교회들에 일임했다. 그래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 갈 수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로 활동하였지만, 그가 어느 곳을 인도 받던지 언제나 중심지를 찾았고, 그곳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인구가 많으며, 많은 교류가 있으며, 복음이 쉽게 교통과 도로를 따라서 인근 지역에 전달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9)

3) Team 선교전략

바울의 선교전략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팀선교다. 그는 고독한 사도나 고독한 기독교 교사로 선교하지 않았다. 바울은 매우 탁월하고 능력있는 선교사였다. 그가 원했으면 혼자서 사역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다. 1 차 선교 여행때는 바나바와 마가요한과 같이, 2 차 선교여행 때는 실라, 디모데(루스드라), 누가(드로아)와 같이 그리고 3 차 여행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여행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일을 분담하기도 했고, 때로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돋기도 했고,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돋는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동역해 왔다. 바울은 실라, 디모데, 디도등 목회를 돋는 사역자들과 팀을 이루었으며, 누가등 기록에 남길자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등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과도 긴밀한 관계 가운데 팀 사역을 했었다. 가는 곳마다 적절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넓은 의미의 선교에 동역했다. 로마서 16 장에서 바울은 27 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들어 문안 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특히 누가와 디모데는 팀의 핵심 인물로써(딤후 4:9, 빌 2:19-23) 바울의 선교를 뒷바침했는데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는 더욱 뿌리를 네릴 수 있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도 베뢰아 사람을 되돌려 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하여 힘을 합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행 17:15) 바울은 외로운 전도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휘한 사령관이었고, 선교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동역자들의 수가 날로 증가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필요에 따라 그의 동역자들을 움직였다.

우리 한국 선교는 이제 선교 단체간에 그리고 교단간에 교파간에 서로 돋고, 교류하고 선교정보를 교류하고, 동서양 선교사들과 동역관계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루어 가야 한다.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하며,

그들에게 교회와 신학교를 물려 주어야 한다.10)

4) 적응성 있는 선교활동

바울의 또 다른 선교전략은 타문화와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선교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했는데 유대인 유대인 같이되고,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아래 있는 자들같이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자 같이 되었다. 그는 복음의 내용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갈 1:6-9 절) 그러나 그 밖의 일들에 관하여는 매우 융통성이 있었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실례로 보면, 1 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선교여행을 떠남과 동시에 그가 로마 세계에 접촉하자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다. 이는 바울이 이미 1900 여년 전에 그의 선교가 “복음과 문화와의 조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의미를 준다.

바울은 선교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6 가지다. 첫째 그는 유대인이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쉽게 유대인들에게 접근했고, 둘째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유대인들에게 대할 때 유명한 스승 때문에 편리했다. 셋째는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헬라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활동이 유리했다. 넷째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다섯째는 그가 노동자였다라는 점이다. 바울은 율법학자이면서도 천막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노동자들 속에서 일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섯번째 그가 유대교에서 개종자였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열광적으로 배척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해 나가자 이방인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5)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제자 양육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불과 5-6 개월 있으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현지인 장로들과 일꾼들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현지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12 제자를 양육하셨다. 다수의 군중보다 소수의 제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의 성공여부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과 용기와 믿음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바울도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제자 삼는 사역을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16, 빌 3:17, 4:9)라고 권고한다. 바울의 전도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된다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여 얻은 결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모아 교회로 세우고, 그들을 가리치고 훈련시켜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바울은 충성된 자들을

모아 훈련시켜 장로로 임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스드라에서 6 개월 동안 설교와 가르침으로 제자를 양성했다.(행 14:23) 개종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그는 "편지"를 보내어 "성장과 개개인의 신앙성장"을 도왔다. 그리고 전도팀의 멤버들을 창설된 새 교회들의 "임시 교역자"로 세웠다.

바울은 **설교와 교육**이 크게 구분되어 지지 않고 함께 병행 되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인 성경학교를 시행했다**. 두란노 서원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그리고 일반인 전도 집회가 병행되었다. 12 명이 훈련을 받았다.(행 19:7) 내 생각에는 12 명이 더 되었을 수도 있다.(?)

6) 토착교회의 설립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곳의 풍토와 환경에 맞는 적합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11) 토착교회란 첫째, 그 풍토에서 소유한 방법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교회이다. 둘째, 그 지역민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를 John L. Nevius 는 자력전도(자치, Self-governing), 재정이 스스로에 의해 운영됨(자영, Self-supporting) 스스로 복음을 전파(자치, Self-propagating) 하는 교회라 한다. 셋째, 그 지역민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자기 주변지역들을 전도하여 복음화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

바울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Cross)의 복음을 전하여 거기에

지교회(Branch church)를 세우는 것이었다. 지교회 설립시에 바울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자치 행정과, 자립적으로 경제를 감당하였고 모든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존하였다. 12)

바울은 교회 설립시 경쟁의식이나 직업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기초를 놓은 곳에서는 피하는 신사도를 보였고(롬 15:20), 교회 설립후에는 양떼들을 성령과 주의 말씀께 부탁하고 원주민 장로들을 세운 뒤 과감하게 미 개척지로 옮겼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원리는 현대선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선교사가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교회의 운영권을 줘고 있으므로 현지인이 사역참여 의식이 약화되고, 주인의식이 약화되어 토착화 교회를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토착교회 설립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장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원주민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원주민에게 넘겨 주는 것이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 핍박을 받아 쫓겨 갈 때를 제외하고는 성급하게 선교지에서 떠나지 않았고, 떠난후에도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각 도시에 머물렀던 것을 통례로 하였다. 때로는 이미 전도한 지역을 다시 돌아 보거나, 사람을 보내어서 목회하거나, 부족한 면을 보충토록 하였다.

7)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선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바울의 활동도 성령의 지도적인 영향속에서 진행되었다. 성령은 생명의 영(롬 8:2), 진리의 영(요 14:17), 권능의 영(행 1:8)이시다. 이 3 중적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엡 2:1, 른 8:11) 죄와 사탄에 의해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며(고전 2:11-15),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슥 4:6)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실례로 그는 2 차 전도 여행시에 아시아 서단부에서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으나 성령이 이를 허락치 않자 성령이 문을 열려 주시는 대로 선교전략을 바꾸어 곧바로 마게도야(유럽)로 갔다.(행 16:6-10) 바울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를 바로 알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시대에 말씀과 성령에 의존하는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하는 전략을 삼았다. 그것은 또한 믿음 선교이다.

선교지 출발시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행 13:1-3), 선교지를 선정하는데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였는데(행 16:10) 이것이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과 주의 말씀(행 18:9, 22:18, 21, 23:11, 27:23-25)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바울 선교의 대원칙이며 중요한 원리였다.

8)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은혜로 자발적이며 희생적으로 선교하는 전략

사울은 풍채보다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탁월함 때문에 어디서든지 출충함을 나타내는 비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과거 한 때에 죄인들의 괴수였고, 훼방자요, 팝박자요, 포행자였었다(딤전 1:13)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고전 15:9)였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으며 그에게서 더 이상 괴수와 팝박자의 위협과 살기 대신에 겸손한 목자, 복음에 대한 열정,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용서, 교회를 세우는 그의 노력, 세상 끝으로마까지 죽음을 무릎쓰고 달려 가는 그의 지칠줄 모르는 달려감(영적 경주)에 동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용서의 힘이 사울에게 용서 받은 탕자가 되게 했다. 용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될 때, 바울 같은 사랑과 용서의 선교사가 태어 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용서와 사랑을 전략으로 삼자. 용서!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와 행위가 없다! 그것이 위대한 바울 선교사를 창조했으니!

9) 관계 중심의 선교전략

オス카 톰슨(Oscar Thompson)이 성경에서 전도이론으로 "관심의 동원들"(Concentric Circles)을 발견했다.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 교정함으로써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자와 피전도자의 관계를 중시한다. 안드레가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거라사인의 귀신들린 사람은 고침 받은 후 친속들에게 나가서 증인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친척과 자기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자기 출신지인 이방인들과 자기와 같은 시민권자들인 로마인들에게 까지 연결된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전했다.(로마서 1:16-17 절)

우리는 아기 출생 생일, 결혼, 환갑연, 장례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혈연, 지연, 학연, 직업, 같은 고향, 동성, 비슷한 고난경험, 같은 환경, 파산경험, 질병등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전도의 다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맥가브란은 하나님 가교"The bridges of God"에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의 가교로 사용 할 것을 말했다. 바울은 로마에 이르기전에 최소한의 26 명의 친척이 있었다한다.¹³⁾ 예를 들어 그는 앤디옥에 선교사로 파송 되기전 10 년간 "다소"고향에 있었다.

결론:

현대의 선교의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바울의 선교전략이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선교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다. 바울의 선교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자들은 R. Allen 과 Oswald J. Smith 등이다. 일부는 "문화적 환경이 달라 채용 할 수 없다"라고 본다. 바울의 전략들은 현대에도 적용 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전략이 곧 하나님에 의한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는 문화의 장벽이 그 당시보다 심하고, 언어의 장벽도 없었으며, 지금의 민족주의 같은 장애가 약한 때였음을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 보냄받은 자가 파송한 교회나 기관과 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21 세기에는 세계의 중요한 대도시들과 도시들을 사탄에게서 찾아 와야 한다.
3. Team 선교이며, 연합선교, Network 이루어 더 넓게 그물을 쳐서 더 많이 낚는 선교이다. 혼자 재능을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된다. 사역자들과의 팀웍과 평신도들을 활성화 해서 팀웍을 이루어 사역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적응성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서 세계화에 적응해 나갔다. 복음의 본질이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응성이 없으면 타문화권속으로 들어 갈 수 없다.
5.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충성된 사람을 골라(선발) 현지인들에게 제자화 훈련을 시켜

이양해 주어 야 한다. 현대 선교는 교회 개척에 약하다.

6. 바울에 의한 외국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을 중심으로 현지에 맞는 토착화된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7.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성례의 역사를 나타내며) 믿음으로 선교하는 전략을 가진다.

8. 죄에서 용서 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인내로 감당하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선교 한다

9. 자연, 학연, 혈연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이용하여 선교한다. 미국, 싱가풀등에서는 요즘은 "목장" 또는 "Cell 그룹 가정 교회"를 하면서 주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여 교회로 들인다.

7) 손인성, 바울의 선교전략과 현대적 접목에 대한 연구,(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 1993, P30

8) 권오현, 바울의 생애, 대한기독교서회, 1996, P349

9) 장훈태, 초대교회의 선교, 도서출판 솔로몬, 1996 P 127

10) 김명혁,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필요성,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 도서출판 엠마오, 1990, P119

11) 강문석, 선교신학개론, 성광문화사, 1981, P58

12) J. Herbert Kane, 선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역, 도서출판 나단, 1990, P136

13) 유재성, 사도바울의 선교방법 연구(서울신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p50

참고 자료:

1) Gerald H. Anderson, 선교신학서설, 박근원 역,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0, P87

2)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150-152

3) 티벨. 알란,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장중렬역, 보이스사, 1978, P74-75

4) 신성종, 신약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신학지남 50 권 2 집, 신학지남사, 1983, P18

5) 이보라,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선교전략, (성결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 1999, P16

6)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역, 도서출판 나단, 1990, P137-13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디아스포라 선교신학교(선교회)

김영제 목사

선교중앙교회 담임목사
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 한파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Universal Care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는 일에 인내와 사랑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귀한 분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자주 소식 드리지 못한 계으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감사한 일

올해 우리 구 소련권 외국인 신학교인 디아스포라 신학교 (디아스포라선교회)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사실 여름까지만 해도 학생들도 많지 않고 특히 남학생이 없어서 많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도 오랫동안 공석 종이고 후원교회도 얼마 없어 재정적 압박도 심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탱해 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신학교가 계속되기 원하시면 학생들을 보내주옵소서, 학생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 신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들을 여기 저기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부부 신학생도 보내 주시고, 좋은 남학생들도 여럿 보내주셨습니다. 이슬람권 학생들도 세 명이나 보내주시고, 러시아에서도 귀한 종족인 나나이까족(에스키모인 비슷) 학생도 보내 주셨습니다. 요즘은 신학을 마치거나 신학을 하던 사람들 까지 한국에 돈 벌러 나왔다가 우리 신학교에 다시 붙잡혀 공부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유라 전도사가 우즈벡에서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 중이고, 근래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젊은 엘리트 알렉산더 목사 부부가 사역에 힘을 잃고 한국에 왔다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우리와 사역을 함께하기로 결단한 일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데 있는 협력 후원교회인 구 소련권 외국인교회 샬롬교회 목사님과 거주자들도 매일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전에는 학생이 몇 명 안되도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많아도 속 썩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공부하는 교실에 가득한 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안나’라는 키르키즈 자매 신학생은 신학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갈 때가

많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권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겠다고 자꾸 헌신하는 중에 있어 감사하면서도 염려스러운(?재정) 중에 있습니다.

12 월 17 일(목)에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루는 신학교와 관계된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하루는 한글 공부나, 헬라어 등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졸업생들 소식

현지인을 파송하여 사역자로 파송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효과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가 5 년의 역사를 지나가니 이곳 저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되어 자세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권워딸리 목사와 태류드밀라 전도사는 단독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는데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1 기 졸업생인 나타샤 전도사와 작년에 졸업한 동류바 전도사 등은 선교사님들의 통역과 사역을 돋는 중에 있는데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 오신 목사님들과 후원교회와 기관,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오직 선교 열정으로, 인내와 사랑 가운데 헌신하시는 교수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12.17 디아스포라신학교(선교회) 김영제 드림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이제 나의 가슴 속에선 짐바브웨의 영혼들의 외침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배성호목사

남아공 선교사

www.josephbae.com

샬롬!

무사히 선교지로 복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년 6개월만의 한국의 방문은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남아공에서의 7년 9개월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새로운 도전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달려왔던 길, 달려가고 있는 길 그리고 달려 갈 길, 그 모든 길은 구령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교회의 건축 그리고 현지 목회자에게로 이양, 내게 맡겨진 120명의 청소년 그리고 협력할 현지 목회자, 이것은 남아공에서의 사역 속에 맺어진 현재 진행 중인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2009년을 마감할 시점에서 주님께 드릴 것은 작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눈물의 단이었으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가슴 속에선 짐바브웨의 영혼들의 외침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미지의 세계, 그들을 향하여 화답하고 있는 나의 영은 벌써 그곳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없도록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는 나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받은 은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길, 기쁨으로 모든 고난 이겨야 할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야만 할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기에 나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그리고 늘 기도의 동역과 함께 든든한 후원자인 유니버설 케어의 여러분이 있기에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짐바브웨의 정탐은 내년 1월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남아공의 예수생명교회의(Life of Jesus Church) 120 여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짐바브웨의 정탐과 붙여 주실 협력자를 위해서, 아내와 영은, 지은,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김우섭선교사



먼저 감사드릴 것은 기도해 주셔서 3년 거주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받고자 힘을 쓰는 부분이 바로 비자 해결입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시도를 해 오고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다시 한 번 유니버설 캐어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1년 이후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은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명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에도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훈련 사역에도 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논문이 통과 되었고, 이제 졸업고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지도자 훈련을 통해 개혁주의 지도자와 교회가 많이 이 땅에 서도록.
-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 영주권 취득을 위해
- 장소(교회, 신학교로 사용될) 구입을 위해.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으로 문안 인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려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제목을 드리오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준하라 예배당 문제에 대한 마지막 재판(12월중)

2. 아로나 실무 총무의 간강건

2007년 수술한 탄소 심장과 피가 부딪혀 파괴되며 피가 입이나 코 그리고 아래로 쏟아지고 간과 부어있고, 췌장이 문제가 생겼음

3. 황필남 선교사의 순회 성경공부와 문제 해결위해

독일 몽골 교회 성경공부(6일간)와 이단결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1 차 11월 29-12월 4일 다녀갔는데, 2 차 1월 15-18일 다시 방문하여 마무리 하도록

4. 이근보 권사님의 요청한 새 교회 개척건이 잘 진행되도록

이미 고인이 되어 천국에 가신 아내의 소원에 따라 남편이 교회 개척을 부탁한 것이 잘 진행되도록

5. 황필남 선교사의 워싱톤 몽골 교회 사역을 위하여

워싱톤 몽골 교회가 아내 김말례 선교사의 몽골 귀환으로 출석교인 70명에서 50명을 줄어들어 황선교사가 대신가서 1달간 목회사역하고 오려는데 이 기간에 교회가 더욱 건고해지고, 성장하도록.

6. 김말례 선교사의 심방 전도사역을 위하여

현재 몽골에 와서 워싱톤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심방하여 전도하여 많은 결실을 하고 이 있는 김말례 선교사의 영적 사역에서 계속 승리하며, 열매를 맺도록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남아공의 예수생명교회의(Life of Jesus Church) 120여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2. 짐바브웨의 정탐과 붙여 주실 협력자를 위해서,
3. 아내와 영은, 지은, 하은이를 위해서.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공석중인 이사장직에 예비하신 좋은 분 허락해 주옵소서.
2.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와 이사진을 주옵소서
3. 좋은 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수진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4. 학생들의 건강과 직장, 재정문제, 두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5. 졸업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6. 협력교회인 샬롬교회를 신학교 옆으로 이사시켜 매일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7. 교수님들과 후원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2009년 9월 29일(화) 오후 7시 월드와이드교회 요셉홀에서 Universal Care



Mission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주강사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예수부활과 세계선교" (마 28:16~20)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송원식 목사님께서 찬양팀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날 총 54명의 예배자가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전 우즈벡 선교사이시고, 현재 은평구 대조동 선교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영제 목사님, 그리고 황필남선교사님의 제자인 어요나 목사님 부부 지금 몽골 평신도 선교사인 최현수 선교사님 등등, 여러 사역자 분들이 참석하시어 더욱 기쁜 자리였습니다.

2. Universal Care에서 황필남

선교사님(www.pnhwang.com)의 홈페이지를 지난 10월 구축해 드렸습니다. 또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님(www.josephbae.com)의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예음교회(고신) 최성필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시었고, 앞으로 Universal Care Member로 동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 11월말과 12월 초에 걸쳐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님과 태국 정도연 선교사님께서



연세 U 치과를 방문하시어 의미있는 교제와 치과 치료를 받고 가셨습니다. 남아공 배성호 선교사님은 이번에 짐바브웨로 사역의 지경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잠시 귀국하시었습니다. 더욱 뜨거운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태국에서 근 20여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정도연 선교사님은 그동안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동역의 기회가 많아 지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5. 2010 년 사역 계획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 6:33)

찬양인도 : 송원식 목사

말씀선포 - 박인용 목사

동역으로 이뤄가는 Universal Care
(고전 3: 6~9)

기도회

Universal
Care

- Universal Care는 여러 사역 분야(영상, 문서편집, 행정, 인터넷사역, 의료 등)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정기모임은 매 분기마다 한번씩 드려집니다. 다음 모임은 2010년 3월 예정입니다.
- 2010년 2월 5일(금) 월드와이드교회 통일한국 아웃리치에 진료팀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0년 5월 1~5일(예정) 몽골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지난 Mission Conference에 이어 오늘 정기모임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송원식 목사님께서 2010년 1월 캄보디아 선교사로 출국하십니다.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